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밀밭이 관광객을 부른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이미 파종된 밀밭이다. 파랗게 자란 밀이 봄을 맞아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김태창 기자

지난해보다 많이 달라져
4만평에 각종 초화류 식재
청보리 꽃양귀비 수레국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가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많은 것이 달라진다.

먼저 블루밍가든 암석원이 조성된다. 기존의 낮은 간판들도 입구 간판, 시설 간판 등 새롭게 표지판이 단장된다. 잔디광장에 있는 나무다리로 새롭게 정비된다. 낮은 나무다리는 철거하고 새롭게 2곳에 나무다리를 신설한다.

포시즌즈가든에 있는 수목도 정비해 무궁화 나무 66주를 식재할 예정이다. 이미 파종되어 있는 밀밭 이외에도 약 2만평 넓이에 꽃양귀비, 수레국화, 각종 초화류 등이 파종된다. 또 다른 1만7천여평 넓이에는 청보리, 이탈이안라이그라스 작물이 파

종된다.

테마파크에는 곳곳에 포토존과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어 잠시 쉴 공간도 있지만 테마파크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이미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특히 시화호를 가로지르는 송전철탑을 가리기 위해 1,200여 주의 메타세쿼이아를 심어 놓았지만 지금은 제법 자라 4km에 이르는 메타세쿼이아 길을 걷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별미다.

한편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는 산업 단지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안산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녹색 해양 관광 도시를 표방하면서 추진한 첫 프로젝트로 지난 2012년 9월 16일 개장했다.

테마파크는 수변공원으로 1.2km의 자연형 수로를 만들고 곳곳에 연못을 만들었다. 전체 넓이는 여의도 공원 면적의 약 4.3배의 크기인 98만㎡ 규모다.

김태창 기자

대부도저널 창간호 발행 기념
창간행사 성대하게 열려



대부도저널 창간호 발행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창간 행사가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원구 상동로 97, 3층(대부북동) 자체 사무실에서 진행된 가운데 모두 200여명의 시민들이 다녀갔다. 사진 왼쪽부터 본지 양운영 회장, 윤성용 발행인, 축하 손님이다.

김태창 기자

7일 10시부터 17시까지
신문사 자체 사무실에서
안산시민과 대부주민 등
모두 200여명 다녀가

대부도저널 창간호 발행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창간 행사가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원구 상동로 97, 3층(대부북동) 자체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창간 행사에는 정치인, 안산시 관계자, 대부도 직능단체 대표, 안산시민과 대부도 주민, 대부도저널 운영위원 등 모두 2백여명이 다녀갔다.

창간 축하화환 20여개, 축하화분도 60여개가 도착해 신문사 사무실이 꽃밭으로 장식됐다.

창간 축하객들은 삼삼오오 자리를 잡고 신문사에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다과를 들며 정겨운 대화를 이어갔다.

본지 양운영 회장과 윤성용 대표이사를 만나 덕담을 나누며 신문사 발전을 기원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축하객들은 회장실, 대표이사실, 회의실, 손님대기실, 편집국 등 곳곳에 마련된 탁자에 앉아 냉이된장국과 영양밥을 들며 머리고기, 홍어무침, 꼴뚜기무침, 영양시루떡과 꿀떡 등을 곁들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축하객들은 한결같이 “대부도저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지 양운영 회장과 윤성용 대표이사 및 발행인은 “항상 창간한다는 마음으로 주민을 대변하는 대변지가 되겠다”고 말하고 “오늘 창간 행사에 참석해 덕담을 준 내용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신문제작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창간행사에 참석한 축하객들은 본지에서 마련한 사은품 보조밥데리와 창간호를 한 부씩 손에 들고 “대부저널 파이팅”을 외치며 각자 또 다시 삶의 일터로 향했다.

〈창간 축하 명단 2면〉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전국대회서 맹활약... 쾌조의 출발 눈길

펜싱부·여자씨름단·유도부
탁구부·태권도부·육상부

안산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가 각종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쓸어들리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첫 주자로 나선 펜싱부는 ‘2025 전국남녀종목별 오픈대회’에서 현 사브르 여자 국가대표인 김정미 선수가 사브르 개인전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사브르와 플러레 단체전 3위를 달성했다. 김정미 선수와 서지연 선수는 최근 국제펜싱연맹 월드컵과

사브르 월드컵에 출전해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쾌조의 컨디션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태안에서 열린 ‘2025 설날장사씨름대회’에 출전한 여자씨름단은 이재하 선수가 국화급(70kg 이하) 장사에 등극했고, 김채우 선수가 매화급(60kg 이하) 3위에 올랐다. 분위기를 이어간 씨름단은 최근 열린 ‘제55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매화급에서 김채우·김은별·김나형·김단비 선수가 각각 1~3위를 석권하며 강호로써의 면모를 뽐냈다.

유도부는 지난해 파리올림픽 개인전·혼성단체전 동메달리스트 김하

윤 선수를 필두로 올해 새로 입단한 허슬미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2025년 회장기전국유도대회’에 참가해 63kg 2위에 입상하는 등 시의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예고했다.

탁구부는 ‘2025 실업탁구 챔피언전’에서 남자 개인 복식 3위(김홍빈, 권오진)와 남자 단체전 준우승을 일궈냈고, 태권도부는 ‘제24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에 참가한 추다인 선수가 -46kg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25 김해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로 2025시즌을 시작한 육상

부도 있다. 남자 110m 허들 종목에 출전한 김경태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여자 100m 허들 류나희 선수도 종별 최강자로서의 활약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올해 초부터 각종 종목별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등대바다낚시터, 대부바다낚시터,
독도바다낚시터, 어심바다낚시터,
하늘바다낚시터, 해솔바다낚시터,
서해바다낚시터, 케이쓰리바다낚시터



사단법인
한국바다낚시업연합회

안산지부 회원일동

안산도시공사 임직원, 산불 피해복구 성금 896만 원 모금

임직원 197명 자발적 참여 대한적십자사에 전달 예정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승)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임직원 19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896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모금된 성금은 안산시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안산도시공사 임직원은 국내외에서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 복구 성금 모금은 물론, 복구 작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재난 위기 상황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허승(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안산도시공사 사장 등 임직원의 모습이다.(제공=안산도시공사)

윤성용 기자

허승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안산도시공사는 지속적인 나눔과 참여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 AI 행정혁신 추진단, Microsoft와 행정 혁신 체험 운영

앞으로도 스마트 행정 도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



안산시는 8일 'AI 행정혁신 추진단'이 안산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함께하는 'AI(인공지능) 솔루션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양운영 기자

안산시는 8일 'AI 행정혁신 추진단'이 안산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함께하는 'AI(인공지능) 솔루션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AI(인공지능) 솔루션 체험 행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하는 AI 체험형 버스가 안산시청사를 직접 방문, 행정 직원들에게 AI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체험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Microsoft Copilot) 기반 업무 솔루션 ▲AI 기반 대화형 챗봇 ▲AI 통역 서비스 ▲AI 야간 민원서비스 자동 기록·분석 시스템 등 다

양한 기술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안산시 AI 행정혁신 추진단 관계자는 “직원들이 이번 AI 솔루션 체험형 버스를 통해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행정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행정 도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안산시 직원들의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 향상은 물론, 'AI 기반 스마트 행정 추진'을 위한 내부 역량 기반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한층 효율적이고 첨단화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운영 기자 debora7@naver.com

대부도저널 창간 축하내용

• 방명록에 글을 남겨주신 분

△(주)종합뉴스통신 최성열 △(주)청호피엔피 김우성 △동리어촌계장 이갑성 △중현 어촌계장 김부열 △중현 어촌계 대의원 최은심 △중현 어촌계 사무장 김도희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대부해솔봉사단 빈호준 △보은용사촌 김태동 △보은용사회 회원일동 △한솔 대표 한연숙 △양지개발 김상준 △보은회 박상택 △전 서울시 금천구 의원 임부재 △양문석 국회의원 보좌관 최권석 △동춘서커스 박재광 △시화나래부동산TV 양금순.신준선 △용담바다낚시터 장길섭 △(주)김경수건축사무소 김경수 △안산 단원경찰서 이용선 △풍도 통장 최상민 △전국승마협회 이한기 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희영 △리리조경 박용복 △(주)우창 이광재 △대부협동조합 김시경 △키캉스 조재숙 △스티그마 617 △하룡 이일상 △안산해운 정사라 △이미자 팬클럽회장 나미주 △섬마을선생님 노래보존회 이국희, 이수민 △익산 기술고문 김희용 △대부파크골프 회장 진병록 △어반 아일랜드 김석영 △세무사 최옥진 △김선철 전 대남초교장 △부산 박기용 △시흥시 이재곤 △이금란 △김복자 △신항숙 △고현석 △이웅중 △백과현 △박현주 △김장식 △김윤수 △신성철 △조부형 △김용천 △임완호 △김종일 △신승하 △김옥경 △박영재 △이세승 △박현배 △유병욱 △이봉길 △이병철 △정명순 △이현진 △서연주 △서연숙 △김혜진

대표 박재광 △건축사무소호반석(주) 김정수 △밀기희 대표 이병철 △해병대대부도 전우회 △용담바다 낚시터 오준태 △매니아 당구클럽 △(주)우창경금숙 이광재 △대부도 파크골프클럽 △(주)이상컨트롤 이상화 △대부도 펜션타운 △정민성, 조은화 △경기도 자율관리어업연합회 △보은용사촌(주)전력사업소 정병철 △대부종합물류 이명건 △KCMC문화원 이용중 △어반아일랜드 대표 김석영 △대부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안산지회장 황진수 △월드 트룟가수협의회 안산지회장 김민주

• 화분을 보내주신 분

△최옥진세무사 최옥진 대표 △향도연 구회 이상정 회장 △대동개발 양금순 대표 △스타섬리조트 이환봉 회장 △용사촌 초대회장 조남용(손일순) △유영상 동생 △한국바다낚시연합회 조부형 회장 △하이필드 배진한 대표 △해병672기 노정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유을상 △보은용사촌(주)수문사업소 박종갑 △(주)정일수산 박선한 △공의교회 장초태 △(주)선광산업 이봉걸 △세무사 박영태 △구룡도 세종상가 관리단 △등대바다낚시터 이한중 △백년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의왕신협 이사장 박세웅 △대부도협동조합 △동주염전 김관중 △운사모 일동 △안산시 △대부도미래발전협의회 △범부법민 운누리변호사 양진영 △안산시관광협의회 부회장 김미희 △안산시 주민자치위원회 김태성 △대부해솔봉사단 회장 빈호준 △인천강화음진축산 대부지점장 △김태동 △현대워터택 이사장 김경갑 △한국생활음악협회 섬마을선생님 노래보존회 회장 △안산시 관광협의회 회원 일동 △태리, 효은 △풍도 최상민 △영흥도 만수피식 일동 △K3바다낚시 △우리은행 선부동 지점장 유미영 △여수동생 민중수 △참치 농망을 △스티그마 617 △공의교회 임완호 장로 △용진코웨이 △경기일보 부천지사장 차동진 △해병대 490기 동기회 일동 △레저보트매니아 존스파파 △말봉 후배 일동 △황금토목설계사무소 대표 유재용 △대부 노인분회 일동 △대부도 플라워 대표 천현호 △채희철법률사무소사무장 박현주 △(주)삼지금속 김덕우 △보은용사회 회원 일동 △이미자 팬클럽 회장 △(주)안산해운 대표 정사라 △부자군인중개사 정찬비 △하늘바다낚시터 차준경 △장자도 놀음바다 임대업 △한국바다낚시연합회 안산지부 △우리은행 경기서부 비즈니스클럽 회장 최재현 △우리은행 경기서부 명사클럽 △우리은행 경기서부 영업본부장 정명섭

• 후원금을 내 주신 분

△스타섬리조트 이환봉 회장 △12통장 최순철 △동리 어촌계장 △중현 어촌계 김부열 △대의원 최은심 △한솔부동산 대표 한연숙 △바다수산 김태동 △머리박사 최순영 △대부도협동조합 김시경 △미레기획 이병철 △삼천리 도시가스 박대선 △최옥진세무사 대표 최옥진 △보은용사회 김용천 △보은용사촌 장길섭 △대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최희영 △김장식 가수 쟁사랑 팬클럽 △리리조경 박용복 △용방건설산업(주) 대표 서승대 △우림건축 이상희 △대부파크골프장 진병록 △김경수 건축사 사무소 △단원 경찰서 이용선 △익산 기술고문 김희용 △하룡 이일상 △신승하, 김옥경 △부산 박기용 △임부재 △박상택 △김복자 △이금란 △신준선 △조부형 △신항숙 △고현석 △백과현 △박영재 △김장식 △이세승 △김대욱

• 화환을 보내주신 분

△렛츠폴 대표 김영만 △동춘 서커스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주문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드립니다

모든 수조는 독일 WACKER(바커)사의 아쿠아리움 전용 실리콘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규 헌 공 방 010-4071-2797



안산시의회, 시정질문·자유발언 실시... 市에 현안 적극 대응 요구



10일 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박은경 박은정, 현옥순 김진숙 한명훈 의원 나서... 산하기관 설립, 예산 편성, 재해예방, 경제활성화 등 시정 전 영역서 문제의식 및 해법 밝혀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10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며 현안 해결을 위한 안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강조됐다.

이날 본회의는 박태순 의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정질문에는 박은경·박은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현옥순·김진숙·한명훈 의원이 참여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박은경 의원은 먼저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추진 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안산미래연구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임대 계약 체결에 필요한 임대료 및 관리비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 공사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리모델링 공사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이나, 계약 작성에 필요한 임대료 및 관리비 예산이 없어 공사를 제때 진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자로 미래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기

관장인 연구원 원장의 요청이 있어야 파견이 가능한데 원장 임명 전 이미 파견이 이뤄졌으며, 이들이 사무실 없이 시 환경교통국 대기 공간에서 근무한 사실도 지적했다.

더불어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로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고 지난해 안산미래연구원 출연금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됐음에도 시가 올해 초 안산미래연구원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박은경 의원은 이렇듯 우여곡절 속에 연구원 개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장이 시민들에게 연구원의 향후 일정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은 시정질문의 또 다른 주제로 민선 8기 와동 지역에서 추진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을 언급하며 주민의 입장과 필요에 따라 사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사례로 든 사업은 와동체육관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과 와동공원 내 생태곤충체험관 조성 사업, 신촌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와동

배드민턴 제2전용구장 건립 사업 등이다. 이 중 수영장과 곤충체험관 사업은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정확한 해명 없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두 사업은 비용과 대와 절차적 미흡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정질문의 다음 주자로 나선 박은정 의원은 안산시의 예산 편성 우선순위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면서 시의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수립과 공동임대주택 공동전기료의 미편성 사례를 비교했다.

박은정 의원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의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 주체인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 전부터 홍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역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시 예산 부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으로 요구하면서 정작 사회적 약자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편성은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은정 의원은 두 번째 시정질문 주제로 안산도시공사가 공공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노인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과 상충하는 고령 기간제 관리 규정의 시행내규를 개정하고 외부 민간 위탁 등을 통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지원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서류 검증을 통해 최대 95점밖에 받을 수 없지만 60세의 경우는 최대 100점까지 받을 수 있다. 안산도시공사가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채용 과정의 연령차별로 시정 통보를 받고 개선을 했으나, 여전히 연령 차별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또 박은정 의원은 도시공사의 이삭길 노상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이나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도입 등도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방 공기업이 위탁까지 진행하는 것이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현옥순 의원이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안산의 산불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현옥순 의원은 ▲산불 조심 기간을 2~5월에서 3월 중심으로 조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것과 ▲임도 점검 및 살수 강화, 노후 장비 교체, 감시카메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보완, 드론 활용 감시 확대 ▲시민 대상 화재 대응 교육 및 불법 소각 예방 홍보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등 세 가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안산시가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적 예방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는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이 별다른 사유 없이 추경 예산으로 재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김진숙 의원은 이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의회의 예산 심

의 권한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한 뒤 특히 해당 사업이 국토부의 안산선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와 50% 중복되어 예산 낭비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관련 부서조차 중복 투자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기정사실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시가 단기적 시각에서 벗어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함께 5분 자유발언에 임한 한명훈 의원은 안산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명훈 의원은 최근 청년 인구 감

소와 제조업 쇠퇴 속에서도, 민선 8기가 국내외 약 160개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유치했고, 인테그리스 코리아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그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시가 4.5차 산업의 심장부인 2조 5천억원의 국가 AI센터 유치에 뛰어들 것과 상위법 개정을 통한 대송단지 개발, 자동차, 반도체, ICT, IT, AI 등의 기업 유치, 신길산단·초지역세권 등 유후부지를 활용한 기업 유치 등으로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명훈 의원은 시가 기업 유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업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다시 뛰는 안산을 위해 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을) 지역위원회 4월 11일 당원교육 개최

추미애 前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 종식, 최우선 과제」강연

4월11일 오후 6시30분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을) 지역위원회가 당원교육을 개최했다.

안산시(을) 당원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당원교육은 12·3 계엄령 선포에서 윤석열 파면, 향후 내란세력 정리까지의 상황을 공유하고 민주당의 가치, 철학, 노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당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초빙강사는 추미애 국회의원(5선, 前더불어민주당 대표)으로, 「내란 종식의 최우선 과제」를 주제로,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당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였다.

추미애 전 대표는“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자행한 현

정질서 훼손과 불법 정치 개입에 대해 철저한 책임규명이 요구되고, 개혁을 미루면 언제든 제2의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다”며 “과거처럼 민생이 개혁유보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민생의 정의도, 민생의 회복도 개혁 없이 일으킬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바람을 잊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안산시(을) 김 현 국회의원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한국민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며 “엄동설한에도 한결같은 마음과 행동을 통해 윤석열 파면까지 끌어낸 안산시민에게 다시한번 고맙다”고 했다.

김 현 국회의원은“민주당의 정신을 되새기고, 다시 만날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안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갯벌이 살아 숨쉬는 청정지역 대부도”
“미네랄이 풍부하고 황토로 구워 만든”
“쓴 맛이 없고, 오직 단맛으로 음식의 풍미를 높이는”

동주염전 소금

토판 소금 / 일반 천일염 / 송하소금 판매

소금지기 대표 김 관 중

M. 010-9080-1195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부흥 127-1 / 동주염전 2구



경기도사회복지대회서 우수 기초지자체상 수상

우리의 시간이 온다' 주제 1,300여 명 참여 속 개최

안산시는 10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열린 '제21회 경기도사회복지대회'에서 공로 부문 '우수 기초지자체단체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찬수)가 주관하고 안산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황인득)가 주최한 이번 복지대회는 '우리의 시간이 온다'를 주제로 경기도 내 사회복지사 1,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산시에서 개최됐다.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31개 시군 지회의 기수 행렬 ▲사회복지사 선서 ▲2개 시군과 2개 단체, 사회복지사 102명에 대한 경기사회복지대상 및 다솜이상 시상 ▲가수 거미의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다.

이날 안산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기초자치단체 2곳에 수여되는 '우수 기초자치단체상'을 수원시와 함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지난 2023년 9명으로 구성된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안산시가 10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열린 '제21회 경기도사회복지대회'에서 공로 부문 '우수 기초지자체단체상'을 수상했다. 양운영 기자 debora7@naver.com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3개년(2025~2027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 수립과 추진 등에 걸쳐 체계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종합계획에는 신규사업 8개를 포

함한 총 20개 사업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당 연 10만 원의 안산형 복지포인트 지원(2025년) ▲장기근속 퇴직자 감사패 수여(2024년) ▲청년 종사자 지원정책(2025년) ▲건강검진비 지원(2026년 시행 예정) 등이 포함됐다.

이민근 시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회복지사가 양질의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도 가능하다. 시는 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운영 기자 debora7@naver.com

市, (사)꿈나무인재육성센터로부터 영남 산불 피해 성금 기탁받아



안산시는 10일 (사)꿈나무인재육성센터로부터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 윤성용 기자

안산시는 10일 (사)꿈나무인재육성센터(이사장 전구표)로부터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후원금 1,000만 원 기탁

(사)꿈나무인재육성센터는 국민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에 설립됐다. 센터에서는 체육 꿈나무를 발굴·육성하면서 각종 대회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체육 우수 선수와 저소득층 장학생을 발굴해 지금까지 1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 해오고 있다.

전구표 (사)꿈나무인재육성센터 이사장은 "예기치 못한 대형 산불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

며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민근 시장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 기부해 주신 (사)꿈나무인재육성센터 전구표 이사장님과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5년 영남지역 산불피해 지원 특별모금'에 기부되어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 열고 따뜻한 나눔 실천

안산시는 9일 한국마사회 안산지사 문화공감홀(신부동, 서울프라자 8층 소재)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정동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 대표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우수회원 표창 ▲내·외빈 축사 ▲불우이웃 후원 물품 기증식(라면 290만 원 상당) ▲2024년 사업 및 결산 보고 ▲2025년 사업계획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다. 관내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



안산시는 9일 한국마사회 안산지사 문화공감홀(신부동, 서울프라자 8층 소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선화 기자

한 ▲정책 제안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정동관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라며 "최

근 경기집체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모두가 지혜를 모아 협력한다면 지금의 시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지역경제의 최전선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계

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안산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것에 더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제2회 대부도 사랑나눔 대축제 오는 6월14일 예정

대부바다항기테마파크에서 하루종일 진행

제2회 대부도 사랑나눔 대축제가 오는 6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부바다항기 테마파크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대축제는 지난해 대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것에 이어 추진되는 것으로 대부초, 대남초, 대동초 등 학부모 관계자와 대부도복지센터 및 축제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대상은 대부도 내 지역주민과 아동 및 청소년들로 수익금 전액은 대부도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기부하게 된다.

주최측은 축제를 통해 대부도내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경험과 배움의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배움의 즐거움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축제 수익금을 활용해 아동복지가 부족한 대부도 지역에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행사를 만들어 지역 내 아이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하자는 취지다.

대부도 지역은 도시에 비해 교육·문화·의료·주거·교통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구역상 안산시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 복지·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갈증이 있다.

지난해 진행된 제1회 대부도 사랑나눔 대축제에서는 플리마켓, 문화체험활동, 진로활동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놀거리를 제공했고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색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유익한 배움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주민·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더욱 체계적이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민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번 축제를 후원하고자 하는 분은 후원계좌(기업은행 125-143100-04-796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를 이용하거나 대부도복지센터(032-883-1070/010-4258-2151)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제80회 식목일 맞아 선부광장서 나무 심기 행사



안산시는 5일 단원구 선부광장에서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각 단체장, 가족 단위 참여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성용 기자

안산시는 5일 단원구 선부광장에서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각 단체장, 가족

▲목공예체험 ▲화분꾸미기 ▲에코백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과 ▲소원나무 ▲인생네컷 등의 이벤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민근 시장은 "최근 발생한 대

5일 단원구 선부광장에서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단위 참여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식목일 행사는 '시민과 함께 초록지붕 올리기'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참여형 행사로 진행됐다. 지난달 20일부터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진행된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한 300여 명의 시민들은 이날 이팝나무, 장미조팝 등의 크고 작은 나무를 선부광장에 식재하며 녹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나무심기 행사 외에도

형 산불로 역대 최대의 산림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나무심기 행사가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앞으로도 안산시에 잠정인 우수한 녹지 자원을 활용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라인업 공개… 136개 공연·프로그램 기대

5월 3일부터 5일까지 136개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축제 열기 달군다



코드세서 특별 나만의 별 ©밤필름



재미롱 재미फल롱정글짐 ©재미롱

대한민국의 대표 거리예술 축제인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관객들과의 스물한 번째 만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산시는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공연과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안산의 도시적 특성을 활용하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05년을 시작으로, 매년 5월 열리는 시의 대표 축제다. 안산문화광장 일대를 중심으로 도심 속 거리를 무대 삼아 시민에게 예술적 감동과 일상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거리에서 만난 예술,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예술과 일상이 연결되는 축제를 목표로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다문화 시민 등 전 계층이 어우러진 축제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 추진하는 축제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로 5월의 시작을 풍성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계층별 맞춤 공간과 프로그램을 갖춰 그 안에서 시민들이 함께 호흡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수어 통역 지원·AAC(보완대체의사소통) 안내·노인 및 장애인 이동수단 지원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도 꼼꼼히 마련했다.

이와 함께 축제에는 안산의 이야기를 발굴한 제작 지원 프로그램 '안산리서치' 공연 2편에 더해 국내 유수의 거리예술 공연단체가 참가하는 136개의 공연과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5월의 안산 거리를 빛낼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주요 공연과 프로그램을 정리했다.

음악과 댄스, 일루션 퍼포먼스까지 대중적인 개·폐막 구성

5월 3일 안산문화광장을 빛내는 개막작은 3개의 작품이다. 우선, 최고의 예술인들을 배출하는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로 이뤄진 중창팀의 '모두 함께 한 걸음'이 희망찬 목소리로 하나 된 '안산'의 열정을 노래한다.

국내 최초로 예술무대를 기반으로 불을 이용해 춤을 추는 장르를 연구 및 개발한 '예화_플레이밍 파이어'는 불꽃과 함께 무용작품 '열정의 조각'을 관람객 앞에 선보인다. 이날 개막의 마지막 무대는 대한민국 대표 스트릿댄스 크루인 '갬블러크루'와 대표 여성 락킹팀 '롤링헨즈'가 맡는다. '스트릿 온 더 탑' 무대로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뜨거운 에너지로 감싼다.

한편, 사흘간의 뜨거운 열정을 마

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5월 5일 어린이날의 저녁 무대는 대한민국 대표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일루션 퍼포먼스'가 40분간 이어진다. 전 연령대 시민에게 대중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환상적인 퍼포먼스 이후에는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환상 불꽃'이 안산문화광장을 수놓을 예정이다.

국내 최정상 거리예술팀 총집합 모든 관람객을 '잇다'

이번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엄선된 공식 참가작 총 27편이 관람객들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대표서커스단이자 대부도 상설공연장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동춘서커스는 '버라이어티 서커스'다. 서민의 삶과 애환, 고통, 기쁨을 어루만진다. 현대적인 서커스를 펼치는 코드세시는 '특별_나만의 별' 프로그램에서 독특한 구조물을 사용한 공연으로 수많은 관중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관람객의 공감대를 형성할 거리극들도 준비에 한창이다. ▲극단민들레의 창작연희극 '똥벼락' ▲루모스 씨어터의 '찰칵, 찰칵!' ▲유상통프로젝트의 '별주부전에 끼어든 인어

공주' ▲이명찬의 '리싸이클맨' 등이 안산문화광장 곳곳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모든 관람객이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는 도구 사용 공연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축구공과 농구공을 사용한 라이켓크루의 '캔트스탑 킥앤점프', 드론을 이용한 현대무용 공연 댄스 폴리댄스컴퍼니의 '브레이크 더 보더', 각목을 사용한 브레이킹 공연인 에이런크루의 '와작', 불을 이용한 댄스공연 예화_파이어앨범의 '파이어앨범 VOL.5', 대형인형과 함께하는 한국인형극협동조합의 '달달한 달', 거대한 로봇팔을 이용한 서커스인 포스의 '교감'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전통연희공연인 리퀴드사운드의 '긴:연희해체 프로젝트 1', 백창팩토리의 마임인형극 '킴 온 베이비', 변검술로 무장한 중국무용희극예술단의 '중국의 맛', 창작플레이의 어린이 인형극 '달구, 별이', 마술극단 다체의 '조선마술패' 등이 무대를 구성한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별도 공간 조성… 개성과 편안함을 '담다'

이번 축제는 축제가 가진 장소성과 공간감을 확장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어린이 공간'과 '청소년 공간'을 조성하는 점이 특징이다.

'어린이 공간'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 놀이터로 꾸며진다. 어린이 입장을 금지하는 'NO 키즈존'이 아닌 'YES 키즈존'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와 가족들을 맞이한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어린이 공간에 마련된 팝업 놀이터에서는 축제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무신학교의 '물 만난 아이들의 첨벙첨벙 물놀이터'가 상시 운영된다. 물 위에 놓인 징검다리 와 거미줄, 물철매를 이용해 어린이들이 물과 하나 되는 놀이터를 만든다.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재미फल롱 정글짐'과 나만의 개성을 담을 수 있는 '축제 모자 만들기', 광장 차도 아스팔트에 상상한 모든 것을 그릴 수 있는 '바닥그림 낙서판'까지 상시로 어린이들을 맞이한다.

'청소년 공간'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고, 서

로의 다양성을 포용하며 자발적으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지만 청소년 문화에 관심이 많은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유명 유튜브 개그 크리에이터 '보물섬'의 스탠드업 코미디 '아령하세여~힛! 보물섬입니다!'를 비롯해 음악 유튜브 크리에이터 '잠골버스'의 '잠골버스 뮤직 토크쇼'와 대형젠가, 거리노래방, 랜덤댄스 스테이지 등 청소년들의 끼와 예술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콘텐츠가 준비하다.

또, 시민이 예술가가 되어 다양한 공연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시민버전'과 난타·색소폰 등의 무대가 가득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버스킹 애호가들을 위한 '뮤직스트리트'와 소통형 아트 플리카켓 '청년예술마켓'까지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연대하고 즐길 프로그램들이 계획돼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9월까지 해양아카데미 운영 시티투어버스와도 연계

안산시는 오는 9월까지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해양레저분야 활성화를 위해 '안산해양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안산시 시티투어버스와도 연계 추진된다.

앞서 지난 2013년 문을 연 안산 해양아카데미는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를 즐길 기회를 시민들에게 고차 매년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5,404명의 체험객이 이용해 2023년 대비 이용객이 16%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9월까지 운영되는 안산해양아카데미는 참여 활성화를 위

해 접근이 용이한 안산호수공원과 안산천 하구 선착장에서 진행된다. 안산호수공원에서는 페달보트·도넛보트 체험이, 안산천 하구 선착장에서는 해상안전교육이 진행된다.

페달보트·도넛보트 체험은 매주 목·일요일 현장 선착순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안산호수공원 호반2육교 쪽에서 접수하면 된다. 해상안전교육의 경우 인터넷 접수를 통해 10인 이상이 모이면 교육이 진행된다. 두 가지 교육 모두 무료로 운영된다.

양운영 기자 debora7@naver.com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토목공사 / 건축공사 / 보강토 시공 / 토지개발 / 토지분양 / 컨설팅



양지개발

대표 김상준 H. 010-9393-5783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7-12 (방조제길 113)

고잔동, 정보교실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교육



단원구 고잔동 행정복지센터는 9일 고잔동 정보교실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고잔동 행정복지센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신속하고 원

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담당자 교육은 물론,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홍보물을 비치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고잔동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되길 바라며, 주민 모두가 디지털 행정 서비스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백운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단 발대식·워크숍



단원구 백운동 주민자치회는 8일 오후 주민총회를 대비해 ‘2025 자치계획단 발대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도 자치계획 실행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주민자치회 위원과 백운동 주민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총회 전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백운동을 사랑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정근 백운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를 앞두고 실시하는 워크숍은 주민과 위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을 통해 백운동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백운동장은 “주민자치회는 기획과 실천을 병행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리더”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본오1동 통장협의회, 영남지역 복구 성금 전달



상록구 본오1동 통장협의회는 8일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성금 전달은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고자 본오1동 통장협의회 통장들이 뜻을 모아 이루어진 기부 활동이다.

이순자 통장협의회 회장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본오1동 통장협의회회의 자발적인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이와 같은 따뜻한 나눔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선부1동, 1사1경로당 자매결연... 가치 실현



단원구 선부1동 행정복지센터는 8일 (취경안과 관산경로당, 선녀골경로당이 1사1경로당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유성춘 (취경안 대표와 관산경로당(회장 김해숙), 선녀골경로당(회장 이춘자) 어르신, 통장협의회(회장 박창숙) 통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서를 교환하고 답소를 나눴다.

(취경안은 선부1동, 와동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담당 업체로 협업을 위

해 내방했다가 경로당 후원으로 이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유성춘 (취경안 대표는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혜 선부1동장은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가 확산하고, 사회공헌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신길동, 역사와 미래가 있는 신길동 로고 재탄생



단원구 신길동 행정복지센터는 신길동만의 가치를 표현하고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한 로고를 새롭게 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신길동은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된 안산의 첫 마을이자, 63북록 도시개발사업 및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안산의 미래를 견인할 마을로 기존 슬로건인 “역사와 미래가 있는 신길동”의 의미와 함께 현재의 신길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민들의 활기찬 모습을 새로운 로고

에 반영했다.

이번에 재탄생한 신길동의 로고는 향후 동주민센터에서 제작하게 될 홍보물 등에 적극 활용해 시민들에게 신길동의 정체성과 비전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인 신길동장은 “로고에 담긴 의미처럼 신길동이 안산의 역사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안산동 남사박경로당과 1사1경로당 협약



안산동 행정복지센터는 9일 안산동 소재 (취매일산업이 남사박경로당과 1사1경로당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임을교 (취매일산업 대표와 이정우 통장협의회장, 박하연 안산동장, 주현호 남사박경로당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됐다. (취매일산업은 건설업을 운영하며 지역 경제발전에 일조하고 있는 기업으로, 사업장이 위치한 안산동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남사박경로당과 1사1경로당 협약을 통한 지원을 결정했다.

임을교 (취매일산업 대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남사박경로당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박하연 안산동장은 “후원해 주신 임을교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1사1경로당 후원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운영 기자**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내가 쓰는 낚시대도 신용이 있습니다
100% ‘국내제작’ 판매부터 A/s까지 더존이 책임지겠습니다
낚시대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더존이 함께하겠습니다

더존 피싱
Deojon Fishing

CBS 173
Made in Korea

김운호 010-3732-0331

세무사 최욱진

최적의 세무사, 최상의 경력과 경험

국세청 32년 경력

조사 14년 / 감사 8년
세원관리 6년 / 불복업무 등 4년

퇴직 전 5년

안산세무서 조사과장 퇴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팀장
안양세무서 개인납세과장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욱진 세무회계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28,201호 (본오동, 보노피아빌딩)
(TEL) 031-8042-6670 (FAX) 0507-1799-3480
(E-MAIL) cujtax0522@naver.com

고객 여러분의 파트너로서
핵심업무에 경력과 경험을 갖추고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있습니다

☑ 더불어 성장하는 세무 도움

- 매입.매출 정리 등 장부 기장 대행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 대행
- 직원 급여 관리 (4대보험 등)
- 경영 컨설팅 (세액 감면/ 공제)

☑ 재산 이전 고민해결 컨설팅

- 양도/ 상속/ 증여
- 사전 증여 등 부의 이전 컨설팅
- 주식 이전 (주식 평가 등)

☑ 억울한 세금 해결하는 불복 업무

- 고지 전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 고지 후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납세자 고충 (민원신청)

☑ 조사 등 세무간섭에 대한 대응

- 세무조사에 대한 업무 대행
- 과세자료 해명 요청에 대한 대응
-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경정청구)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 정 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웅진군 선재도상인회, 웅진군여성단체협의회 공동 노력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350만원 모아 기탁

웅진군 선재도상인회(회장 소복선)와 웅진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소복선)는 9일,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 350만원을 모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선재도상인회 및 웅진군여성단체협의회는 매년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번 산불피해 성금 전달은 '다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뜻 깊은 결정이었다.

소복선 회장은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힘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 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경북 웅진군수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성금을 기탁해 주신 선재도상인회와 웅진군여성단체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이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웅진군 선재도상인회와 웅진군여성단체협의회는 9일,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 350만원을 모아 기탁했다.

윤성용 기자

연평면, 소연평 주민과 함께 식목 행사 추진

이번 식목은 소연평 주민 중심으로 교류코저 진행

웅진군 연평면(면장 황준철)은 10일, 소연평 ‘얼굴 바위’데크 일원에서 식목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주요 행사가 대연평 중심으로 치러졌던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행사 참여 기회가 적었던 소연평 주민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장단, 새마을부녀회, 면 직원, 소연평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해 나무를 식재하고, 기존에

식재된 뱃나무에 비료를 주는 등 자연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황준철 연평면장은 “이번 식목일 행사는 단순한 나무심기를 넘어, 소연평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연평면 전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평면은 매년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 심기 행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 단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웅진군은 10일, 웅진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10기 웅진군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정희재 기자

웅진군은 10일, 웅진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10기 웅진군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입학생 58명을 비롯해 내빈과 가족, 친지 등 8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난 2013년에 개교한 웅진군농업대학은 지금까지 총 375명의 지역 농업 인재를 배출했으며, 지역 농업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입학식은 농업대학장(군수 문경

복)의 입학식사를 시작으로 축사, 제10기 신입생 대표 선서, 뱃지 전달, 입학기념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문경북 농업대학장은 “웅진군농업대학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느끼며, 지역 농업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지도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웅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제10기 농업대학은 더욱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환경원예학과에서 생활농업학과로 개편하였으며, 앞으로 농업의 다양한 가치에 초점을 맞춘 교과목들을 편성해, 교육생들이 웅진군을 이끌어갈 차세대 농업 인재로서 육성할 계획이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대청면 2025년 4월중 민 관 군 합동으로 깨끗한 환경정비 나서

웅진군 대청면(면장 임승운)은 9일, 지두리 해변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으로 Clean-Up Day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주민, 해병 6373부대 장병 및 면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봄을 맞이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두리해변에 적체된 해안쓰레기 약 30톤 분량을 수거하여 청정하고 깨끗한 대청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해변 청소에 참여한 한 해병대 장병은 “해병대는 국민과 함께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청도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청도 환경정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 연평면은 10일, 소연평 ‘얼굴 바위’데크 일원에서 식목 행사를 개최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2025년 신규 공중보건 의사 직무교육

도서지역 보건의로 특성 이해하고 실무역량 강화

웅진군은 10일, 2025년 웅진군에 배치될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도서지역 보건의로 특성을 이해하고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교육은 웅진군 병원선과 7개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웅진군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과 열악한 보건의로 환경

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안정적인 진료,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처치와 이송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 3년간 지역주민의 건강과 의료취약지 보건 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복무를 마치는 7명의 공중보건의사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윤영 기자 debora7@naver.com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부도미래발전위원회 일동

도민이 직접 만드는 안전메시지 미디어 제작단 2기 모집

오는 25일까지 재난·안전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신청 가능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5일까지 ‘도민119 재난·안전 미디어 제작단(안전 히어로즈)’ 2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도민119 재난·안전 미디어 제작단’은 일상 속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영상 콘텐츠를 도민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이다.

모집 대상은 재난·안전 콘텐츠 제작에 관심있는 경기도민 20명이며, 1인 크리에이터로 5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콘텐츠 제작 경험이 없더라도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 연령층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발된 제작단에게는 소방본부 견학, 소방장비 작동 및 현장활동 체험 등으로 구성된 소방 체험을 비롯해 콘텐츠 제작 교육, 전문 멘토링, 소방 콘텐츠 제작 지원, 제작 콘텐츠의 TV 방영 등 다양한 활동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전자우편(gg@kcmf.or.kr)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북부소방재난본부(119.gg.go.kr/north/)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kcmf.or.kr/KCMF/contents/KCMF050921.do)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과 안전에 대한 시민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라며 “도민이 주도하는 재난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흔들림 없는 민생정치로 대한민국 치유·회복 여정에 함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흔들림 없는 역할 다짐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치유와 회복의 여정 속 민생을 향한 경기도의회의 흔들림 없는 역할을 다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제 얼어붙은 갈등의 계절을 지나 대한민국 봄날을 함께 열어가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지금 경기도의회는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삶의 안정이라는 단 하나의 방향을 위해 이번 회기가 성숙한 협력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을 지키고, 고단함을 보듬는 민생의 정치로 경기도의 진정한 봄을 앞당기는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국가 안정화를 위한 노력 속에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및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발한 활동 및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치유와 회복의 여정 속 민생을 향한 경기도의회의 흔들림 없는 역할을 다짐했다.

김 의장은 “중앙정치의 거센 풍랑 속에 지방자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며 “중앙이 메우지 못한 일상의 틈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라고 피력했다.

이어 “도민 삶을 지킬 최전선에 서 있다는 책임감으로 나아가겠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과 의정정책추진단 활동 등을 통해 도민 삶과 연결

된 정책들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더 깊이 살피고, 더 가까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도민을 더 깊게 살피고, 더 빠르게 응답하기 위한 길”이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목소리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를 바로 세우는 일에 멈춤 없

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관련해 “산불로 고통받고 계신 이재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경기도의회도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제 내 꿈도 한국어로 말할 수 있어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한국어 교재 발간,
경기도 전역, 해외까지 보급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경기한국어공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한국어 배움 교재를 발간해 경기도 전역과 해외에 보급한다.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재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다문화 학생의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위

해 제작했다.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한 다문화 학생 대상 한국어 집중교육 기관이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46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교재는 ▲표준한국어 의사소통 1~4단계 지도 ▲한국어 기반 교과별 지도 ▲창의적체험활동 운영지도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동영상 자료와 참고 자료를 제공해 교육 효과를 높인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장윤정 의원이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안산출신, 장윤정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학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고교학점제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정비 했으며,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회피 제도 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

도적 장치를 포함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대표 유재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TEL. 032.886.1817 M. 010-3433-4635

측량(경계, 현황, 분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입목조사, 입목벌채허가, 복구설계, 재해위험성 검토)

형질변경, 토목설계(토목4구조계산),

토목시공(매립, 보강토, 옹벽, 토지 절, 성토)

도로 점 사용허가, 사도개설,

성장관리 계획구역 검토 및 자문, 각종 민원처리

김선철 안산문화관광해설사

‘섬마을 선생님’ 배경지로 유명한 이미자 가수 기념관을 대부도에 건립하자

현재 안산문화관광해설사로 지내고 있는 김선철(73) 해설사는 대남초등학교에서 8년 동안 교장으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때 ‘용의 눈물’로 유명한 김재형 PD로부터 “대부도 대남초등학교가 이미자 가수의 ‘섬마을 선생님’ 배경지입니다.”하는 소리를 듣고 ‘섬마을 선생님’의 배경지는 대부도의 대남초등학교라는 사실을 안산은 물론 전국에 알리는 일에 나선다.

다른 곳은 라디오 방송의 주요 무대였거나 영화촬영지였을 뿐 총각선생님이 계셨던 학교는 없었다는 것이다. 대남초등학교는 ‘섬마을 선생님’ 가사에서 나오는 철새, 구름도 쫓겨 가는, 총각선생님, 섬색시 등 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김재형 PD의 설명이 뒷받침한다고 강조한다. 갯벌이 있는 곳에 철새가 있고 염전이 있는 곳에 구름이 쫓겨가는 것인데 대남초등학교는 1960년대 당시 염전이 21개가 있을 만큼 유명했던 곳이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남초등학교 앞에 염전도 재현했고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포럼

받았지요. 그 전에는 시흥 정왕초등학교(학생수 1,800명)에서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교장이 되어서 대남초등학교 교장을 희망 했습니다. 49세에 교장이 되었거든요. 그 후 2012년 2월 말까지 10년간 교장으로 있었고 대남초 교장일때는 ‘섬마을 선생님’ 얘기를 듣고 해당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또 그 당시 학교 폐교 얘기가 나와 학교 살리기 위해 노력할 때이고 최종인 환경운동가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를 지키려면 갯벌을 이용해 특성화 학교로 지정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갯벌생태 학습장으로 학교에 염전을 만들자고 생각해서 결국 해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염전 학교가 되었고, 학교 앞 갯벌인 공유수면을 점·사용 허가 받아 사용했지요. 처음에는 안산에서 공유수면을 사용한다니까 난색을 표했지만 어촌이 살아야 해수부도 산다고 해수부에 질의서를 올렸습니다. 해수부에서 좋은 생각이다면서 적극 추진 의사 밝히자 안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면적은 3,300㎡이고 되

“라디오 드라마 섬마을 선생님은 1966년대 전남 고흥군 녹동항에서 가까운 섬이라고 했고 영화 첫 부분은 전남 하태도, 촬영은 인천 대이작도와 소야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이작도 계남분교와 소야도 소야분교는 섬마을 선생님 영화 촬영지일뿐 배경지가 아닙니다. 그곳이 대남초등학교 부근보다 촬영하기가 좋아 촬영장소로 선택한 것입니다. 대부도는 갯벌도 많고 철새도 많습니다. 구름도 많아 가사에서 나오듯이 ‘구름도 쫓겨 가는 곳’은 염전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데는 염전이 없지요. 대부도는 염전이 있는 곳이고 특히 대남초 부근에는 당시 염전이 21개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도가 ‘섬마을 선생님’ 배경지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옛날에는 대남초 학생이 900명이나 되었고 2부제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미자 선



김선철 안산문화관광해설사는 대남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가수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 배경지가 대남초등학교였다는 말을 듣고 ‘섬마을 선생님’ 배경지를 알리는데 수호신으로 변신한다. 현재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다. 대부도저널 신문사를 찾아 온 김선철 해설사를 만나 장시간 ‘섬마을 선생님’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대부도는 갯벌, 철새, 해당화, 염전, 새색시, 총각선생님 모두 고증 된 곳
섬마을 선생님 배경지는 대부도, 다른 곳은 영화 촬영지 및 드라마 제작지

도 개최했다. 앞으로 본지에 20회에 걸쳐 ‘섬마을 선생님’ 연재가 이어질텐데 그만큼 독자들의 기대도 크다.

섬마을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텐데요.

“교사때부터 ‘섬마을 선생님’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지내왔습니다. 대남초등학교는 해당화, 선생님, 섬 색시, 구름도 쫓겨 가는, 철새, 갯벌, 염전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너무나 ‘섬마을 선생님’ 배경지와 닮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학교 주변에 해당화를 심으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학교 주변에 해당화는 얼마나 심은 건가요?

“대남초등학교 주변에 300주 심고 풍도분교에도 200주를 심었습니다. 제가 대남초 교장으로 있을 때 풍도분교는 관리학교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도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던 시기는 언제였고 그때 한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남초등학교는 2005년 9월 1일 발령을

직 후에도 5년 정도 봉사했는데 그 이후 체험학교에서 제외되면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었는데 또 한국 습지 시범학교로 지정도 되었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은 학교 앞에 염전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지 독지가가 나타나면 다시 학교염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권한이 학교에서 안산시로 옮겨졌을 뿐이니까요.”

대부도가 섬마을 선생님 배경지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2010년 4월 6일 해당화를 심고 난 뒤 텃집에 갔는데 해뜨는 마을 펜션 현장에서 일하는 정모 소장이 드라마 ‘용의 눈물’을 감독한 김재형 PD를 소개시켜주었습니다. 그때 김 PD님이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이 대남초등학교다 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배경지를 찾아다녔는데 그 이듬해 돌아갔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즈음에 어떤 분이 홈페이지에 대남초가 섬마을 선생님 배경지라고 게재한 바 있고 박명훈 전 시의원이 함께 하자고 제안해 본격적으로 대남초가 ‘섬마을 선생님’ 배경지라는 노력과 알리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섬마을 선생님 배경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생의 3대 명곡 중 하나가 바로 ‘섬마을 선생님’입니다. ‘섬마을 선생님’은 요즘 어린 가수나 장윤정도 부를 만큼 안 부르는 가수가 없습니다. 대부도를 알리고 관광지와 시키는 데 가장 좋은 소재가 바로 ‘섬마을 선생님’ 노래입니다. 이곳에 이미자 기념관을 짓고 이곳에 음악실도 만들어 맘껏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자 유품을 전시하고 이미자 노래를 듣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미자 노래가 담긴 레코드판을 기증해주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대부도가 관광지로 제대로 정착되려면 관광객들이 최소한 3시간은 머물러야 합니다. 해당화 특산물로 차도 만들고 기념품도 만들고 해당화 둘레길도 만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부도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금도 팔고 농산물도 팔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가는 거지요.”

‘섬마을 선생님’을 불렀던 가수 이미자도 이곳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섬마을 선생님’ 가요제나 이미자 가수 축제를 하면 직접 오겠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노래는 못 불러도 격려차 오겠다고 합니다. 이미자 가수 팬카페 회장이 직접 전달한 말입니다. 참고로 이미자 가수는 1941년생으로 최근 가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가수 이미자를 기리는 이미자 기념관을 섬마을 선생님과 유명한 대남초등학교에 건립하지는 운동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대남초등학교에 기념관 일부라도 만들면 람사르습지 기념관으로 사용하더라도 일부는 이미자 가수 기념관으로 하고 인근에 있는 학교용지를 이용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람사르습지는 철새를 강조하는 곳인데 이미자 노래에도 철새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자 기념관은 관광객 유치, 안산시 홍보에도 유리합니다. LP음반 대부분 가지고 있는 분이 기념관 마련하면 모두 기증하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미국까지 가서 구입한 것들도 있을 만큼 귀한 것들이고 지금은 구입할 수도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대남초등학교가 대부초등학교로 통합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대남초등학교를 섬마을 선생님의 이미자 기념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람사르습지 기념관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한 두칸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학교 옥상에 철새 탐조가 가능하도록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상을 사용하면 람사르습지 철새를 볼 수 있습니다. 학교가 폐교되더라도 일반인에게 넘기지 말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면 됩니다.”

앞으로 본지에 20여회에 걸쳐 섬마을 선생님을 연재할 계획인데 어떤 내용들을 담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철새따라 찾아 온 총각 선생님, 구름도 쫓겨 가는 대부도,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포럼 개최, 대부도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 건립, 대부도 섬마을 선생님 해당화 길, 섬마을 선생님 음악회, 섬마을 선생님 배경지 대부도를 트로트의 메카로 등이 연재될 것입니다. 연재를 마치면 대부도저널과 함께 출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재 하면서 이미자 가수 기념관을 대부도에 건립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꼭 이미자 가수 기념관을 대부도에 건립합시다.”

글 :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사진 :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김선철 프로필

진주교육대 졸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
안산서초등학교 교감
정왕초등학교 교장
대남초등학교 교장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대부도 ② 해당화 피고지는 섬마을 대부도



晴境(정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계절의 여왕 5월이면 장미꽃을 꼽는데, 해당화 꽃향기에 비할 바가 못된다. 필자가 2016년 3주간 화성시 라비돌리조트에서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받게 되었다. 연수 마지막 날인 5월 27일 해설시연을 하는 날 '대부도 대남초등학교 해안가에서 판 해당화 꽃잎 한 봉지'를 책상 위에 펼쳐 놓고 해설을 하였다.

“안산시 25번 김○○입니다. 여러 분 꽃향기가 나지 않나요? 무슨 꽃의 향기가 이렇게 좋을까요?…… 해당화 꽃이랍니다.”

“해당화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지요? 국민 가수 이미자 씨의 3대 명곡 〈섬마을 선생님〉입니다. 우리 한 소절만 불러볼까요. ‘해~당화 피고 지~는~섬마을~에~’ 언제 불러도 애잔한 느낌이 들지요? 이 노래를 작곡·작사한 분과 친하게 지냈던 서울 중앙방송국(현 KBS) 김재형 pd께서 대부도가 이 노래의 배경지라고 증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대남초등학교 앞 바닷가〉

언하였습니다.”

해당화 꽃향기기 강의실에 가득한 것에 발표자도 놀랐는데, 해설을 들은 연수생도 “해당화 꽃향기를 처음 맡아 보았다. 해당화 향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꽃말이 ‘미인(美人)의 잠결’인 해당화(海棠花, Rosa rubiginosa)는 관목으로 1~1.5m의 높이로 바닷가의 모래땅이나 산기슭에 군락을 형성하는 염생식물이다.

줄기와 가지에 잔가시가 많으나 어린 순은 나물로 먹고 뿌리는 당뇨병, 치통, 관절염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꽃은 진통과 지혈은 물론 향수의 원료로도 사용한다. 특히, 해당화 뿌리를 매괴(玫瑰)라 하는데 독성이 있어 임산부는 반드시 전문의(

専門醫)의 진료 후 조제복용(調劑服用)해야 한다.

해당화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스승의 날인 5월 15일 전후(前後) 한 달간이다. 예부터 ‘화려한 꽃이 빨리 진다’고 하였듯이 해당화 꽃도 크고 향기가 좋아 양귀비꽃같이 한나절 반이면 피고 진다. ‘해~당화 피고 지는~’ 가사에서 이경재 작사자의 예리한 관찰력을 엿볼 수 있는데, 여러 개의 해당화 꽃봉오리가 ‘연이어 피고 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한송이가 오랫동안 피어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 노래의 배경지 근거를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조사하였다. 이때 효율적인 현장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기획·집필은 김선철 전 대남초 교장, 자문·감수는 대부도 출신인 신정웅 전 인천 간석초 교장, 행정·섭외는 1~3대 안산시의회 박명훈 전 의원, 증언 촬영은 한국생활음악협회 이균희 안산지회장이 맡아 추진하였다.

1965년 “섬마을 선생님” 노래가 발표될 당시 대부도 지역에 해당화 군락(群落)이 많았는지 조사하였다. 2018년 7월 30일은 대남초등학교 제6회 이재복 졸업생과 70년대 초 대부도 대동초등학교 신정웅 전 교장 선생, 2018년 8월 8일 오전은

흘곶 마을 이구영 소금 뚫배 선장님, 오후에 비롤 마을 김대한 전 17통 통장님, 2018년 8월 11일은 중부흥 마을회관에서 서강훈 총각 선생, 2018년 8월 26일은 행남곡마을회관에서 노인 회원 등 많은 졸업생과 마을주민, 학교 선생님 등으로부터 해당화 군락이 많았다는 증언을 들었다.

1960년 개교당시 대남초등학교 학구는 대부남동 선재대교 입구의 망선리(望仙里) 선착장부터 말부흥(末富興) 부항포구(浮缸浦口)까지 8~10km 모래 언덕에는 해당화 군락지가 많았다고 한다. 총각 선생님이 살았던 느릿뿌리와 대남·이화·금화염전이 있던 긴장불이 해안은 모래와 자갈이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사람들의 발길도 닿지 않아 그 넓은 해안이 온통 해당화 군락지라 하였다.

특히, 겨울에 따뜻한 전라도와 경상도 남해안은 키가 큰 동백나무 군락지가 많아 해당화 군락의 형성이 어려운 반면, 겨울에 매우 추운 경기도와 강원도 등 중부지방 해안에는 키가 작은 해당화 군락지가 형성되기 좋은 자연환경을 구비하고 있어, 넓은 갯벌과 해당1화 군락지가 많았던 대부도가 노래 배경지로 설득력이 큰 것이다.

데스크 칼럼

대부도 행정타운 건립 필요성과 주민들의 이해



김태창
편집국장

대부동 행정타운 건립은 대부도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현재의 행정 시설들은 오래됐고 분산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대부도의 성장에 따라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동행정복지센터, 파출소, 소방서, 은행, 병원 등이 산재되어 있다.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만큼 주민들은 편리하고 이용에도 효율적이다. 주차공간 또한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지금의 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총회나 행사한 번 하려면 주차문제부터 발생한다. 어르신들이 높은 계단을 올라야 하고 누구는 “동사무소 한 번 가려고 하면 만리장성을 오르는 기분이다”고 하소연 하며 긴 숨으로 헐떡인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타운 건립은 대부도의 강남으로 불리는 대부해양본부 인근 사유지로 이전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토지 매입비가 필요없고 주변에 이미 왕복 4차선 이 확보되어 있어 건립 비용이 최소화 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부해양본부 인근으로의 행정타운 이전은 대부도의 발전과 함께 행정 시설이 집중되어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도 있으며, 현재의 상동 지역이 황폐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타운 건립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대부도의 발전과 함께 상동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타운 건립과 함께 상동 지역의 재개발과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역 사회와의 협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타운 건립의 필요성과 이점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찬성하는 주민들에게는 행정타운 건립이 대부도의 발전과 함께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강조하면 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에게는 상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활성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 그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결국, 행정타운 건립은 대부도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부도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행정타운 건립이 필요한 이유와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찬성하는 주민들에게는 구도시 지역의 활성화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대부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오는 6월 3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선거인 지방선거는 내년 6월에 치러진다. 지금 이민근 시장이 대부동 행정타운 부지를 결정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지만 만약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하고 간다면 다음 선거에 나올 시장 후보는 공약으로 제시하면 좋을 듯 하다.

그런 다음 당선된 이후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당선 후 즉시 추진하면 된다고 본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회장 양운영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충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성원전기

대표 : 조억 M : 010-4632-9779

팬션, 주택, 신축, 개축, 전기A/s 고장수리, 전기, 조경공사 일체

대부도저널 창간을 축하합니다

바다 낚시업의 활성화와
바다 낚시인의 더 나은 힐링 장소를 위해
기여하는 **한국바다낚시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바다 낚시를 대표하는 한국바다낚시연합회입니다.

우리 연합회는 해양수산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바다 낚시의 선진화를 위한 교류 협력, 홍보, 정책개발, 회원사의 경영역량 기강화 및 권익창출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수산자원보전과 국민레저의 질적 향상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바다낚시연합회는 100만 낚시인과 바다낚시업 사업주의 소중한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바다낚시연합회 회장 조부형



사단법인
한국바다낚시업연합회